

お名前 () さん

옷의 종류나 상표에 따라 치수 표기가 알쏭달쏭 애매하여, 사이즈만 보고

옷을 샀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골탕을 먹은 경험은 누구나 한 두 번은

있을 것입니다.